



Screamdelez
International

몬델레즈 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노동자 탄압으로 만들어진 맛?

맛의 원료는
인권침해!



몬델레즈 인터내셔널(Mondelez International)은 2012년 10월 크래프트 푸즈(Kraft Foods)에서 스낵 부문을 분리, 설립한 초국적 스낵 회사다. 이 회사는 “맛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와 직원, 지역사회가 즐겁게 되는” 꿈이 있는 기업이라고 자칭한다. 그런 이 회사가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일하는 자사의 노동자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탄압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민중들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투쟁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몬델레즈는 자사의 공장 문에 들어서서는 순간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캐드버리(현 몬델레즈) 껌 공장에서의 노동은 고되다. 2011년 한 노동자가, 보통 3명이 조작하는 기계를 상급자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다루다 엄지 손가락 절반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해고됐다! 무바라크의 몰락은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고, 이 즈음 이 공장의 노동자 300명 중 250명이 자주적인 노조를 결성했다. 사용자는 노조인정을 거부했다. 정부의 임금인상 훈령을 회사가 거부한 데 대해 2012년 7월 27일 야간조 근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회사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 5명을 보복 해고했다.



www.SCREAMDELEZ.org



* 비도덕적인 경영의 모델

몬텔레즈는 튀니지 SOTUBI 사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비스킷 업체 중 하나이면서, TUC과 같은 몬텔레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1600명의 노동자들 중 수백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2012년 7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에 노동자를 대표했다는

이유로 노조 사무국장이 해고됐다. 이어서 사무차장도 정직을 당했다. 경영진의 광범위한 탄압으로 남아 있는 노조 간부들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집행부 사퇴에 합의했다.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됐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고 경영진은 성실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몬텔레즈의 노동자 탄압 방식은 노동자 대표를 해고하고, 이들 해고된 노조간부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거짓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전세계의 대다수 몬텔레즈 노동자를 대표하는 IUF가 몬텔레즈 본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묵부답이다.



이집트와 튀니지의 몬텔레즈 노동자들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조 간부들의 복직과 노조인정, 성실 교섭 쟁취를 위한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국제연대에 함께 합시다!

동지가 할 수 있는 연대!

- screamdelez.org 캠페인 사이트를 방문해, 이집트/튀니지 노동자들을 지지한다는 항의 서한을 몬텔레즈에 보내기
- 동지들 국가의 몬텔레즈에 두 나라 회사측의 기본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하기
- 더 많은 지원 방법을 보려면 screamdelez@iuf.org 로 문의하기



Screamdelez International



@Screamdelez

몬텔레즈 노동자 기본권 쟁취 국제연대투쟁

